

치매시부모 돌봄을 통해 나타난 며느리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 Experience for Parents-in-law with Dementia

Hye Young Cho**, Seong Eun Boo***, Jong Hwa Je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ahmyook University,
Hwarangro-815, Nowon-gu, Seoul-City,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experiences in caring parents-in-laws have affected the lives of daughters-in-laws and to analyze how muc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has reduced their economic burden.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s of three respondents inquiring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We learned from the case study that their caring experiences could be described as “the beginning of a tough and long-term connection”, “the life as a daughter-in-law, not her own”, “a hard life like a rock”, “look-back of my life” and “new and transforming life.” Despite their unique experiences while serving their parents-in-laws as a traditional care-giver, they considered such experiences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ir lives into a positive direction after their parents-in-laws passed away of dementia, They have been experiencing with a series of burdens from insufficient information, limited hours of the elderly home care service facilities, and the lack of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is case study suggests to improve the level of awareness of dementia among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and to locate more consultation clinics with social workers specialized in dementia.

* 연구는 2014년도 일본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Jeong & Cho, 2014)을 수정, 가필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 The 1st Author. Tel.+82-2-3399-1666. E-mail. sukin0309@hanmail.net

*** Co-authors. Tel.+82-2-3399-1666. E-mail. b4743@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82-2-3399-1666. E-mail. welfare36@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ug. 18, 2015 / Revised: Sep. 15, 2015 / Accepted: Sep. 20, 2015

Key words: case study method, the aged with dementia, care by daughter-in-law, family car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 돌봄자인 며느리의 치매시부모 돌봄 경험이 며느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이용이 돌봄 부담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돌봄을 직접 수행한 3명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내러티브를 질적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로써 며느리의 돌봄 경험은 <질기고 긴 인연의 시작>, <내 삶이 아닌 며느리의 삶>, <바위가 되어가는 고된 삶>, <되돌아보는 나의 인생>, <허물을 벗은 새로운 인생>의 5가지로 나타났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는 전통적 역할기대에 의해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 받고 돌봄 기간 동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돌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서비스이용경험에 나타난 돌봄 부담경감 부분에서는 부족한 정보제공과 재가요양서비스이용 시간, 지역 내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시설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셋째, 요양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 및 가족의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고 치매센터의 기능을 지역 내에 확대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치매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례연구방법, 치매노인, 며느리 돌봄, 가족 돌봄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현재 12.7%인 638만 6천명이며,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1%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4). 장기간 고령화에 대비해온 프랑스, 미국,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7~14%되는 기간이 1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고령화¹⁾는 가족부양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며느리 부양의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후기 고령노인의 인구증가는 노인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와 치매 유병율의 증가²⁾를 초래하여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정은 물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추이 : 농가 수는 2005년 1,273, 2010년 1,177, 2014년 1,121로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2005년에 9%, 2010년에 31.8%, 2014년 39%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농업조사』, 『농업총조사』('00년 '05년 '10년).

2) 『2008년치매유병율조사』 서울대학교병원조사, 대상전국 65세 이상인, 8,199명.

치매는 치료보다는 보호부양을 필요로 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입장에서는 24시간 상시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와 육체의 피로누적, 사회생활 참여시간의 부족,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또 다른 치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MIn, 2006). 치매질환은 노인자신뿐만 아니라 전 가족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과 주 돌봄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가족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실제로 치매 환자를 유기 또는 살해하거나 가족 또는 본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신문이나 TV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Sung, *et al.*, 2013).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의식과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부양에 따른 모든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고(Cheong, 2000; Seo, 2003), 이는 아직까지도 장남부양의 책임 관념이 높고 실제로 돌봄 의무는 여성인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것(Sung, 1995; Ma, 1994; Kil, 2004; Seo, 2004; Choung, 2007; Chun, 2008; Kim, 2009; Park, 2013)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며느리는 사회적 규범의 의무책임에 의해 돌봄을 맡게 됨으로써 다른 가족지원에 비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또한 사적·공적 지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고 있으며(Seo, 2003) 서구와 일본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책이 거의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문제를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Kil, 2004).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돌봄 행위를 당연시하는 유교 문화적 사상으로 인하여(Yih, *et al.*, 2004) 여성인 며느리에게 초점을 두고 며느리의 시각에서 경험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양부담에 관한 경험 연구를 다루고 있다(Kim & Jun, 1995; Youn, 1998; Kang, *et al.*, 1999; Kim, 2007; Kong, *et al.*, 2009; Yoo, *et al.*, 2010; Kim & Choi, 2011; Kim, 2013; Kwon, *et al.*, 2015).

또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담경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BPSD(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Yun, 2013),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경감한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비용과 노인 의료비 절감, 서비스 시간의 연장과 병원 이송 차량의 필요 등 부가적인 서비스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시부모를 부양했던 며느리의 돌봄에 대한 경험 사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돌봄을 종료한 후에 며느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탐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이 며느리의 돌봄 부담의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교적 문화 특성으로 인한 ‘효’사상에 의하여 혈연이 아닌 며느리가 돌봄을 제공했던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돌봄 경험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탐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매시부모의 돌봄 경험이 며느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이 며느리의 돌봄 부담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전의 연구들

치매는 지능이 완전히 발달한 후 의식장애 없이 전반적인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성격장애, 행동장애 등을 보이는 임상증후군으로 치료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증후군이다(Cho, 2006). 질병의 특성상 인지, 기억, 환경 등의 영향으로 우울, 분노, 불결행위, 야간배회 등 다양한 심리증상과 행동증상(BPSD)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로 보이는 증상이나 변화를 쉽게 눈치 챌 수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Hwang, 2010).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관리 대상을 4, 5등급까지 추가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1가지 이상이라도 이용하는 비율이 40.6%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모두 치매병원이나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 돌봄자는 남자(31%)보다 여자(69%)의 비율이 높다(Central Dementia management center, 2014)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 가족의 연구는 주로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생기는 부담감이 부양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Kim, 2007), 전반적으로 부양자의 치매에 대한 이해나 증상판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좌절과 당황, 죄책감 등의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Kim & Jun, 1995)고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주 돌봄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며느리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Lee, 2006; Sung, 2006), 하루 부양시간이 많을수록 주부양자의 부담감이 높았고(Song & Choe, 2007),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가 의존적일수록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Ma, 1998; Kim, 2001; Sung, 2006). 이처럼 치매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일상적 활동이나 기능의 손상이 심각해서 과중한 보호와 도움을 요구하므로(Zarit, 1989; Motenko, 1989), 부양의 결과로 심리적(Greene, et al., 1989), 건강상 부담(Barusch, 1988)을 겪게 되며 치매시부모를 돌보는 며느리가 정상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보다 심리적으로 높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Yun, 1996).

며느리의 돌봄 행위는 전통적인 성(性)역할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매우 강한 문화적 전통으로 자

리매김 되어오고 있으며(Jeong, 2002), 남성에 비해 돌봄에 대한 높은 의무감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ih, *et. al.*, 2004).

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강현숙(Kang, *et. al.*, 1999)의 공동연구에서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가치가 개인보다 우선하고 효의 윤리적 원칙이 근본원리를 이루는 가족주의 특성으로 인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이 왜곡되고 여성으로서 양육과 재생산 역할과 함께 치매노인을 돌봐야 하는 역할가중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하였다(Yih, *et. al.*, 2004).

Seo(2003)은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이데올로기 속에 억압되고 강제되어온 며느리의 케어경험을 통해 내러티브 탐구방법론을 연구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중재방안의 하나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며느리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종적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발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세대 간 차이가 있으므로 장래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k(2007)는 주말단기보호서비스센터를 이용한 며느리 4명을 선정하여 서비스 이용 전·후의 경험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치매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교육,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수발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Chung(2007)의 연구에서도 핵가족화와 개인주의화로 인해 노인부부가정이 늘어가고, 배우자 주부양자가 보다 정확한 치매에 대한 지식과 증상 인지력을 가짐으로써 치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치매노인 배우자나 부양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배우자들이 주부양자들 간의 부양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치매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대처 기술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배우자 주부양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Kim(2007)의 연구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매노인복지서비스 실천은 치매노인 간병을 둘러싼 돌봄 가족이 처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통하여 다학문적인 노인복지를 제언하고 있다. 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팀 접근법 사용, 치매진행 정도에 따른 노인복지 개입방안과 가족 돌봄자의 특수한 대처 방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Oh(2003)는 치매시설의 생활보조원의 돌봄 경험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종교적 봉사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봉사의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환자관리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교육, 근무조건 향상 등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 시설에서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의 연구들은 치매노인의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스트레스 요인 분석, 대처방안, 정책적 사안에 대한 연구로 문제제기에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주부양자에 대한 돌봄의 부담은 가족부담으로 남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며느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가진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유교적 문화기반이 시어머니의 돌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치매시부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양부

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제도시행 이후의 선행연구³⁾

치매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돌봄 수행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치매노인의 요양원입소, 치매노인 학대와도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고(Kong, *et. al.*, 2009) 특히, 경제적인 요인으로 시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노인학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Paeng(2009)은 사회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가장 높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이나 변화가능한 부양자의 대처전략과 가족원의 친밀감이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치매노인의 수발시간이 6시간 미만인 대상자가,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대처반응을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케어 한다는 것은 이차적으로 사회전체에 가정불화와 부양문제 등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갈등이 가족관계에도 변화를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이 높을수록 신체적 소진이, 사회활동 부담이 높을수록 정서적 소진이, 정서적 부담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높아져 결국 가족관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Kim & Choi, 2011)는 연구와 함께 제도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담감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가 의존적일수록(Cho, *et. al.*, 2010), 주부양자의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Kwon, *et. al.*, 2015)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Yoo(2010)은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과 대처능력의 조사결과에서 부양자의 여성 비율이 76%, 장남 및 차남의 아내인 며느리의 비율이 45%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양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 사생활 제약, 신체적 건강 악화, 정신적 부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부양자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Lee(2009)의 연구에서도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며느리들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노인이 여성이고, 동거하고 있을 경우, 경제력이 없고 연세가 많을수록 의존성이 크고 그에 따르는 부양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간호제공자의 부담감이 치매노인을 시설에 보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특히, 2012년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치매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이 되기까지 결국 가족이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그 대부분의 부담이 며느리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노인의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맞춤형 간호중재 제공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 및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Yun, 2013).

치매노인 돌봄자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부양부담 고통 요인 중의 하나인 역할속박감과 부양시간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역할속박감은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양부담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돌봄자의 자아상실감과 속박감이 환자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Kwon, *et. al.*, 2015).

Song(2013)는 치매노인의 부적절한 행동심리증상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제공자에게도 가족 부양자의 부담감과 다름없이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제공자라는 소명의식으로 인해 가족 돌봄보다 만족감이 높고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5%는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치매노인 행동심리증상의 효과적 대처 및 관리,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간호 제공자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이 양적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부담의 요인에 의해 가족 간 갈등과 치매노인의 시설입소 및 치매노인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 내 돌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제안, 간호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2013)은 며느리 10명과 딸 2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효사상과 유교사상으로 부양을 맡게 된 동기와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하여 주부양자가 신체적, 심리·정신적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크며 가족 간 갈등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단편적인 양적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제적인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으며 기존의 양적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양가족의 심리적인 요인을 알게 된 것을 성과로 보고 있었다.

Lee(2013)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며느리 주부양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부담이 경감한 부분도 있지만 신체적·심리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양부담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며느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요양시간의 연장, 노인용 병원 이송차량의 필요성, 노인의 의료비 비용절감과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의 절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에 대해 시설입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2014)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 배우자에 의한 돌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배우자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도 있게 밝히는 것과 배우자 돌봄 역할 수행과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개발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Kim(2010)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의 개척자라는 사명감과 함께 노인들에게 정서적서비스를 지원하며 보람을 느끼지만 업무스트레스와 보호

자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와 사회적 시선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식개선과 치매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정부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Sung(2012)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대처는 질병에 대한 예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주부양자들의 부양에 대한 두려움과 소진의 원인이 되어 부양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의 질병 인식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과정 분석을 통해 질병의 초기 상태에서 병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와 같이 치매노인의 전인적 삶의 완성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치매노인 가족 돌봄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과 소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배우자, 딸, 며느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돌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며느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Yun, 1996; Kang, *et. al.*, 1999; Seo, 2003; Yih, *et. al.*, 2004; Park, 2007; Kim, 2013)는 현재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을 돌보기 이전과 돌봄을 제공한 이후의 경험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 부양자 중에서 며느리만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치매노인이 돌아가신 후 돌봄 경험을 재조명하여 돌봄 제공 이후의 며느리 삶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 이용이 며느리의 돌봄 부담 경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을 1년 이상 케어 한 경험이 있는 며느리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과 눈덩이 표집(snow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경기도 S재가노인센터에서 돌봄 경험자 1명을 소개 받고 그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인터뷰 녹취에 대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참여자 3명에 대해서는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참여자의 직장에서 2~3회씩, 90분~120분 정도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July 2014 study conducted at the time)

Participants	Participants A	Participants B	Participants C
age	52	52	57
Profession	Social Worker	Care bohosa	Social Worker
Education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Graduation
Dementia care period	10years	4years	5years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Catholic
Relationships with participants	Parents-in-law (Second daughter-in-law)	Father-in-law (Second daughter-in-law)	Mother-in-law (First daughter-in-law)
Dementia diseases	Parkinson's disease	Hydrocephalus Dementia	Vascular dementia
Social institutions that use	Care bohosa, Hospital Care	Family Care	Care bohosa
Rating system (Long - Term Care Insurance)	Mother-in-law 1 Rating	3 Rating	3 Rating

1) 참여자 A의 사례

참여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10년 동안 돌본 며느리로 결혼초기 경제적 어려움 없이 딸 하나를 낳고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파킨슨병이 걸린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며 시아버지는 심하지 않아 초기에 별로 부담이 없었다. 동거를 시작한 2~3년 뒤 시어머니께서 똑같은 파킨슨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린 두 자녀와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자존심이 강한 편이어서 묵묵히 받아들이고 며느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에 대한 강한 미움과 불신의 증세를 보이게 되어 시부모 돌봄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둘째 자녀를 임신 중이었던 참여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장애아를 출산하게 되었고 결국 평생 장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장애 자녀를 돌보며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지가 없어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수차례 느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다른 형제분이 모셔주길 원했지만 본인의 의사는 묵살되고 참여자의 건강이 악화(허리통증)된 후에야 시아버지를 형님 댁으로 모셔가게 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결국 3개월 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남편의 무능력과 부족한 배려로 서운한 마음이 깊었고,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갔다.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참여자는 끝까지 모시지 못한 죄책감과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설입소거부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두 분의 치매어르신을 모셨던 어려움보다 그 고통이 자식에게 이어졌다는 죄책감이 아직

도 크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으며, 며느리로써 의무와 책임은 다 했다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제도를 이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으며 며느리로써 의무와 책임은 다 하려고 노력하였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오히려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과 재가노인복지센터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다 사회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활동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

2) 참여자 B의 사례

참여자는 시아버지가 뇌에 물이 차는 질병(수두증)에 걸려 시어머니와 함께 모시기 시작하였다. 시어머니와 남편형제들이 시아버지의 수술을 반대하여 치매증상이 점점 심화되고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살피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이 시설에 모시고자 했으나 본인과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셔보자고 본인이 제안할 정도로 돌봄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컸다.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의심, 가족 간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능함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도맡아 해도 가족원들은 알아주지 않아 섭섭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사건들도 있었다. 오히려 무관심한 가족원으로 인해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편한 점도 있었다고 한다. 치매시아버지를 돌보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시아버지 사후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마저 돌보는 상태에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녀와의 마찰과 갈등이 심해져 이혼까지 하였다. 치매시아버지로 인하여 사춘기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은 학교친구들의 폭력으로 행해져 결국 자퇴를 하게 되어 자녀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심했다. 현재 참여자는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안정이 되어가는 자녀를 보고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돌봄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것을 감수하여 오던 중, 몇 번 쓰러지고 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었고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뇌종양 수술로 참여자는 참고 견뎌 온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아버지 돌봄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며 자녀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3) 참여자 C의 사례

참여자는 10년 전 재혼가정으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딸 하나인 남편과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치매증상이 없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통에 라면을 끓

이는 것을 보고 치매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시어머니가 등급을 받은 후 가족요양과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시어머니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점점 시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심해지며 성격변화가 나타나고 참여자 자신이 데리고 온 아들을 무시, 구박하는 행동을 보여 정(情)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려고 노력하며 정 없이 살았으나 다행히 남편의 이해와 사랑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겨냈다. 치매시어머니의 증상은 과도한 식탐으로 이어져 혼자 음식을 하면서 가스사고가 있어 참여자의 아들이 가스사고로 죽게 될까봐 정신적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참여자 아들에게 구박이 심해지고 직장생활을 그만 둘 수 없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한다. 남편 형제는 시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해야 할 정도의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시어머니의 죽음이 다가오고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레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과 참여자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남편과 참여자와 아들 간에 성당에서 고해를 하며 종교적 힘으로 다시 가정의 화합을 이루어냈다. 마지막까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아직도 기도를 올리고 계시며 가족이 다시 화합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직업을 바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의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인 며느리들과 개별적 인터뷰를 2~3회 90분에서 120분 정도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참여자의 직장 내 조용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치매시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했던 며느리들의 실제 사례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질적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적은 수의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방법이다(Yoon & Park, 2014). 치매시부모를 돌보던 며느리들의 삶의 경험과 그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의 삶의 변화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자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사례연구 방법(Stake, 1995)이 보다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S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시부모를 돌보던 며느리와 지인으로부터 며느리를 소개받았으며

치매의 기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을 받았거나 병원에서 치매의 진단을 받은 후 그 돌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인터뷰 준비부터 분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질적 연구를 공부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들과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하여 연구 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와 일대일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인터뷰와 녹취를 허락 받았다. 그리고 참여 동기를 밝힌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도중철회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인터뷰 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공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또한 본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승인은 연구자가 재학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연구처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윤리심의승인(IRB:SYUIRB2014-104)을 받았으며 turnitin(<http://www.submit.ac.uk/>) 표절예방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문제없음(유사성 7%)이 증명되었기에 논문을 투고하게 되었다.

IV. 연구결과

1. 내러티브 탐색 결과

며느리의 치매시부모 돌봄 경험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그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질기고 긴 인연의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듯이 건망증의 시작이라고 여긴 사소한 행동들이 환각, 환청, 망상, 의심, 인지 저하행동 등 점점 이상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대처 지식이나 돌봄 방법을 몰라 많이 당황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중략).....두 분 건강도 안 좋으시구.....(중략).....아버님만 (파킨슨병)있으셨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님도 음...증상이 오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었는데,”(참여자A)

“알몸으로 화장실 간다고.....(중략).....간호사한테 얘기하니까.....(중략).....원래 아플 때 치매가 심각하게 나타나다고.....(중략).....당신 물건 어디다 놔는데 없어졌다.....(중략).....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죠.”(참여자B)

“그 라면을 그냥 냄비에다 끓인 것이 아니라.....(중략).....그 설거지통에다 끓이셔갖고.....(중략).....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 우리 어머니가 처음이야 내 생애 노인 분은, 그니깐 나이든 사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 어갔구, 좀 싫었어요.”(참여자C)

연구 참여자들은 며느리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치매시부모를 돌보지만 30대 초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함께 돌봄에 대한 거부와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내가 이십대에 결혼 했다면 내가 못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30대에 결혼해서 책임감, 의무감으로 애들 저기 하고 그러니까 참고 견뎠지, 만약 내가 어렸을 때 결혼했으면 벌써 뛰쳐나갔을 거야.”(참여자A)

“진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중략).....이런 것들이 조금 음, 억울하기에는 그렇지만 나의 불만이죠.”(참여자B)

“아무래도 저희가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낮에 챙겨줄 수가 없었고.”(참여자C)

2) 내 삶이 아닌 며느리의 삶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치매노인을 보살피다보니 정작 본인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병을 얻은 후에야 치료를 하게 되었다. 치매노인의 돌봄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하루를 지내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동이 힘들니까 이제 좀 누워계시고, 계속 이제 불러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앉혀라 눕혀라.....(중략).....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한의원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겨를이 없었다니까, 애들하고 어르신 시부모님한테 온 신경이 저기했지, 나 생각 할 겨를이 없었어요.”(참여자A)

“참고 참은 것이 종양이 된 것 같아요.....(중략).....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니까.....(중략).....근데 몸 관리를 잘 안하잖아요,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기는 게 주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참을 만하면 참다가 정 아프면 쓰러지는 거죠.....(중략).....너무 피곤하면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 사우나도 가야 되고, 어쩔 때는 머리도 해야 되...그렇다고 잠깐잠깐 봐주는 요양원도 없고.”(참여자B)

“진짜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리는 말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이거는 아닌가 싶은 게.”(참여자C)

참여자 3명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으며 돌봄의 기간 동안 고단함을 남편이나 친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어디다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런 거 밖에 없더라구요.”(참여자A)

“성경 글귀를 읽으면서 나한테 와 닿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음. 부모, 남편, 자식 모든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거기서 해소가 된 것 같아요.”(참여자B)

“더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럴까.....(중략).....종교 활동 때문에 많이 마음이 여유가 있었고 그 뭐랄까 사랑이 좀 있었고 좀 긍정적이랄까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참여자C)

3) 바위가 되어 가는 고된 삶

남편과 시댁식구는 돌봄에 대해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 지면서 가족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옳다고 말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과 돌봄의 부담을 표현하며 부양을 담당하는 며느리의 고된 삶을 경험하였다.

“나중에는 도저히.....(중략).....나는 살수가 없다.....(중략).....그 생활이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중략).....무슨 때나 보지 자주 보지를 않거든.....(중략).....무슨 일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또 누가 보겠어? 결국 이런 데로 모시지 않는 이상 또 내가 모셔야 되고.....(중략).....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참여자A)

“신랑이 못 갈 때는 나. (아무도)없어요,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아주버님이 (큰형님한테)시킬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열흘이고 2주고 제가 혼자 했죠.....(중략).....그래도 (시댁)식구들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 식구가 해야 되는 거.”(참여자B)

“저녁에 퇴근 시간을 맞춰야 되고, 어머니 식사 문제도 있고.....(중략).....부담감이 많죠.....(중략).....귀찮은 적이 많고 미운 일이 많고 그랬어요.”(참여자C)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부모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며느리에게 욕설과 폭력, 또는 하대와 무시를 하였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과 시집살이가 겹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런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는 돌봄의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고 점점 더 치매노인에게 정이 떨어짐을 느꼈다.

“나한테만.....(중략).....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시더라구.....(중략).....제일 만만하잖아요. 며느리가.....(중략).....욕하고.....(중략).....소리 지르시고 짜증내시고.”(참여자A)

“나가는 년 짓거리 한다고.....(중략).....사람들 있는데.....(중략).....너무 이렇게 대접 못 받고 너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고.....(중략).....아버님은 그래요, 저년 밥도 안준다고.....(중략).....좀 늦게 일어나면 저년 밥도 안주고 잠만 쳐 잔다고.”(참여자B)

“친정에 뭐 빠다 돌렸냐, 뭐 빼돌렸냐고 그러는 거야, 빈 통인데, 그러는 거야.”(참여자C)

참여자의 남편들은 모두 가정에서의 돌봄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며느리가 경험하는 부양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알려고 하지 않거나, 며느리가 모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모신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갈등으로 자살의 위기나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직장 나가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당신 엄마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와이프 입장은 아니잖아요.....(중략).....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중략).....이게 막 사는 건가, 회의감도 오면서 눈 뜨기가 싫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우리 형님이 안 봐, 무슨 때나 와야 가만히 앉아 있다 가고.”(참여자A)

“너무 황당해서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중략).....신랑은 자상하지도 않고.....(중략).....저희 신랑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시누이들은 애기도 안하고 아주버님이 뭐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참여자B)

“아들(남편)이 한 번도 안 나와 봐서, 아들(남편)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못 본거예요. 어머니 문제로 인해서 아들(참여자자녀)하고 그 남편하고 최악의 상태였어요.....(중략).....그 정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배신감 같은 거 느낀 거죠.”(참여자C)

치매노인과 24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는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었다. 더욱이 치매노인은 대인관계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생기는 불화나 불상사에 대해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작은 애가 아팠어요. 계속 시부모한테 받는 영향으로 임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저체중 아이로 태어났고, 그런데다가 여기 고름주머니 같은 거를 갖고 나와 가지고 작은 애가 큰 대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중략).....한 가정이 너무 힘들어져요. 애들도 희생이고, 모든 게 다...친구들도 뱀새난다고 놀려오지를 않아요.”(참여자A)

“손자랑 싸우고.....(중략).....꼭 학교 갈 때 건드려요, 그러면 화풀이를 학교 가서 애들한테 하잖아요.....(중략).....아들이 중학교 1학기만 다니고 그만 둔 게 그 분풀이가 학생들한테 가니까.”(참여자B)

“(어머니가)불내는 일이라까, 가스사고가 자주 일어났었어요.....(중략).....아들이, 낮에 잠자는 일이 있어.....(중략).....늘 오면 무섭다고 했었어요, 20층에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참여자C)

치매시부모를 돌보는데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등의 일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돌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였다.

“간병비가 장난 아니예요 최하가 6-7만원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중략).....그니깐 돌아가실 때는 거의 다 쓰시고 돌아가셨으니까 화장하고 납골당 들어가니까 제로가 되더라고요.”(참여자A)

“그걸로(가족요양) 돈벌이 했어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위해서 다 썼잖아요, 맨날 뭐가 들어갔다고.....(중략).....그리고 병원 계속 가는 거예요.”(참여자B)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지만.....(중략).....경제적인 거도 무시 못 하고.”(참여자C)

긴 간병과 돌봄의 시간 동안 며느리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시부모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시설 이용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나 치매노인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르는 불효에 대한 갈등과 부딪히게 된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요양병원 가가지고 2,3달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거기가면 죽는다.....(중략).....나는 절대로 그런 대는 안 간다.....(중략).....아들도 또 엄한테 내가 저기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간은(중략).....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강력하게 안 가신다는 데.....(중략).....역지로 보내고 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참여자A)

“본인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내요, 자식이 되겠고.....(중략).....그리고 만년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거기 가서 얼마이는 것은 싫은 거죠.”(참여자B)

“저희 세대까지는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는.....(중략).....내가 감당을 못 할 때는 요양원은 생각해 보자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참여자C)

전업주부인 며느리의 경우는 집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불만스러움을 표시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생활로 인한 부족한 돌봄으로 인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집에 놓고 있으면서 누가 와서 해주고.....(중략).....처음에 요양사 온다는 것도, 야, 너가 하면 되지 요양사가 오냐.....(중략).....그때만 해도 초창기였고 사회적으로 인식들이 부모는 내가 모셔야지.”(참여자A)

“(요양서비스)그건 좀 싫어하죠, 저 사람 뭐 하러 자기 집에 오냐?.....(중략).....우리 집에 쓸데없이 왜 오냐? 어, 도움 주는 건 모르고.”(참여자B)

“다른 이웃이나 봤을 때 저 가족은 어떻게 치매어른을 방치하지 않았을까 그런 편견을 갖고 볼까봐 쟁피하고 두려웠는데.”(참여자C)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등급을 받은 노인은 한 달에 4시간씩 20여일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제도가 시행 된 초기에는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이용으로 며느리에게 처음에는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치매증상이 중증일 경우에는 그 서비스 시간이 부족했고 제도와의 마찰도 생겼다.

“노인돌봄.....(중략).....그때는 또 몰랐었고.....(중략).....장기요양보험이 도움은 되는데 하루에 4시간 갖고는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외출을 막 내 불일을 잠깐 잠깐 보지만 어디 이렇게 가서 볼 수도 없고.....(중략).....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는 1등급을 받았어요, 병원에서.....(중략).....의식이 말씀도 못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1등급을 주면 뭐하냐고.....(중략).....당신 와서 보라고 상태를, 공단 직원하고 싸웠어요.”(참여자A)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치매에 치매등급을 안주셨잖아요, 그냥 일반등급으로 받아서 (가족요양)한 시간씩 하나까 보는 것은 많은데, 인정해주는 거는 한 시간이니깐 금액도 적고.....(중략).....공단직원 실수로 해서.....(중략).....단기보호로 알아보라는데 동네 단기보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때는 단 6일이라도 주간보호에서 받아줬으면 하는데.”(참여자B)

“4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중략).....집에까지 오면 8시 반입니다.....(중략).....10시간 넘는데 그 긴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볼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데.....(중략).....그 나머지 시간은 방치가 되는 건데.”(참여자C)

치매노인과의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것,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것이 본인의 정신적·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긴 돌봄에 치매노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은 자신만 피해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감당이 안됐죠. 마음을 비웠으니까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참여자A)

“그냥 뭐 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중략).....저는 그러려니 하고선.....(중략).....그런 거 가져도 스트레스는 나만 받는 거잖아요, 나만 쌓이는 거지,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고 신경도 안 쓸 뿐 아니라.....(중략).....힘들었는데 표현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음,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도리로서 한 거지”(참여자B)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할 도리만 해. 저도 약간 비위가 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손녀가 하겠어요? 손자가 하겠어요?”(참여자C)

시부모의 치매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을 책임지는 며느리는 돌발적이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치매어르신을 돌보느라 하루하루 똑같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혼자 돌봄의 몫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하였다.

“어머니 병원 한 달에 한 두 번 씩 모시고 가야 되고 약 타고 진료 받고 뭐 그러느라고 병원 모시고가야 되고(중략)..... 하여튼 병원이 문턱이 닳도록.”(참여자A)

“허리까지 안 좋구, 그런데도 나가서 꼭 들고 와, 말해도 소용없어요, 소귀에 경 읽기랄까.”(참여자B)

“물도 내가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적당히 해줬는데, 왜 뜨겁냐, 업살을 부리거나.....(중략).....000한테 얘기할 때 보면 저년 나쁜 년이라고.”(참여자C)

4) 되돌아보는 나의 인생

젊은 나이에 치매노인의 돌봄을 위해 사회적으로 단절하고 지내야 했던 암울한 시기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고 주위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이 감당하고 삭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내가 단절이 된 거예요, 막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중략).....두 분들은 그러고 있지 애들은 어리지 그러니까 꿈쩍을 못하겠는 거야, 내가 생전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애들 아니었으면은”(참여자A)

“아버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서 먹고 자고 제가 이준가 삼주를 했어요.....(중략).....큰며느리한테 밥 한 번 안 싸오고 그러고 어머니가 왔어도 밥값 한 번 안 사주고.....(중략).....한 두어 정겨장 가서 사먹고 병실오고 그랬어요.”(참여자B)

“외식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했을 때, 늘 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귀찮고 없었으면 했고, 어떤 때는 죽었으면 할 때도 있었어요.”(참여자C)

며느리는 치매시부모를 돌보면서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치매노인을 학대하거나 소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매시부모 돌봄에 임하는 자신의 행동에 좀 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환자니까 아프신 분이니까……(중략)……불편해도 내가 애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참여자A)

“아들 앞에서 제가 화내고 남편을 무시하면 애가 배울게 뭐가 있겠어요……(중략)……그냥 내가 할 도리 내가 하면 내 자식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참여자B)

“내 아들이 과연 잘 해줄까……(중략)……나도 자식 키우고, 나도 낼 모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참여자C)

종교적 신앙심과 노인 봉사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그들의 사례를 통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종교를 찾게 되고……(중략)……순수봉사단체지 일을 하고 더 이해가 가는 거지, 이걸 하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A)

“이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을 찾다보니까 고마운 것도 알고 기초수급자 만들어 주면 나의 뿌듯함도 있고.”(참여자B)

“종교 활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내 이웃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눔 봉사활동 할 때는 마음이 편해져요”(참여자C)

기나긴 간병의 시간도 어느덧 치매노인의 죽음 앞에서 끝을 보이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돌아가시는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 없이 간병과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면서 치매시부모를 대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하는 데까지 하면 돈이 드는데……(중략)……폐렴기가 좋아지더라구, 좋은 약을 쓰고……(중략)……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괜찮아 지시더라구요.”(참여자A)

“응급상황으로 링거 맞으면서……(중략)……그게 제발이 되요, 원인이 없는데 그 국가 의정부보훈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걸 반복했었는데.”(참여자B)

“1분 간격으로 또 졸고……(중략)……죽음이 온 것 같아……(중략)……똥이 다 묻은 거야…이 정도는 자식을 키워주었으니깐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중략)……기저귀를 막 던져버리더라고……(중략)……병원에 가서 그 의사선생님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중략)……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중략)……내가 대처하는 방법 때문에.”(참여자C)

치매시부모를 돌보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살아계실 때 좀 더 성의껏 진심을 다해 헤드리지 못한 것, 의무적으로만 대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죄송한 마음과 잘 헤드리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회상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오히려 허전함을 느꼈다.

“요양병원으로 모셔가 가지고 거기서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 끝까지 내가 그냥 힘들어도 모셨어야 되는데.....(중략).....그래서 내가 아...좀 참을 걸.”(참여자A)

“막판에는 목욕도 내가 했어요.....(중략).....응급, 중환자실에 가 갔구 한 4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중략).....병원 안 모시고 갔으면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어요.”(참여자B)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새삼스럽게 옛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 소용이 없다.....(중략).....치매 어르신들이 같은 말 하는 게 싫어서.....(중략).....는 한번 마주쳐주지 못한 따뜻하게 해주지 못 했던 게 진짜 미안한 것 같아요.”(참여자C)

5) 허물을 벗은 새로운 인생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종교 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삶의 긍정적인 면을 되찾고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공부를 하거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며느리 본인만의 삶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삶에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에만 있지 않고 내가 자꾸 나가서 활동하게 되더라구.....(중략).....믿음 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구 사회에서 보조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들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더라구요.”(참여자A)

“앞으로는 어려운 독거노인, 그 마지막 가는 생을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지 않아야 되겠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날 때 이렇게 어려운 주민들 찾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할거구요...종교적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참여자B)

“종교 활동 때문에 많이 마음이 여유가 있었고.....(중략).....사랑이 좀 있었고 좀 긍정적이랄까,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참여자C)

치매시부모를 돌보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좀 더 책임감 있는 미래설계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미래를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과 며느리 참여자 세 명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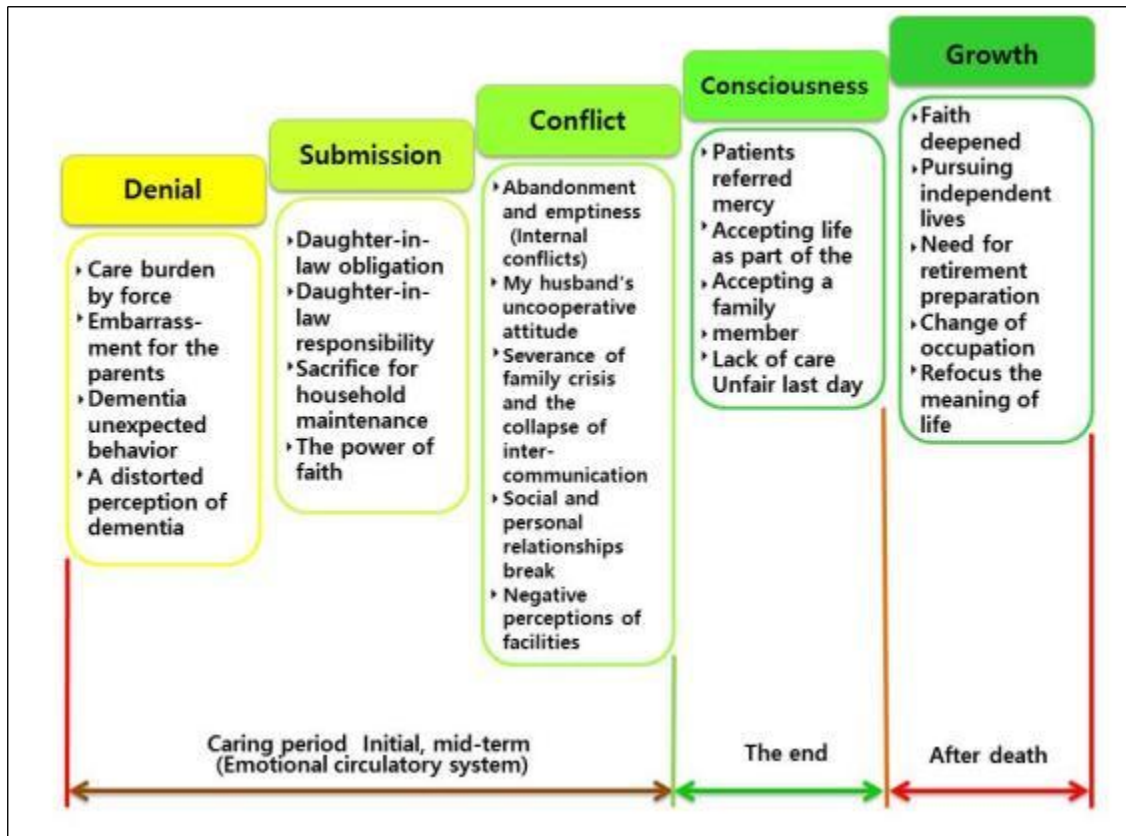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봉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중략).....일을 하고 더 이해가 가는 거지.

”(참여자A)

“저희가 센터도 하면서 그 센터가 나눔을 하는 봉사정신으로.....(중략).....어르신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마지막 가는 생애 있어서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행복감과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중략).....그분들이 삶을 왜 사는지 의미를 조금 부여해주는 데 기여를 하고 인제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까지.....(중략).....그 집안에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참여자B)

“나 역시 노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중략).....가족한테나 나 본인자신한테도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중략).....배운 거, 들은 거 행동으로 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노후가 행복하지 않을까.”(참여자C)

2.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감정의 변화



<Figure 1> Step-by-step evolution of feelings for daughter-in-law's care experience

며느리의 경험을 토대로 삶 속에서 나타난 감정의 단계적 변화를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린다.

치매시부모와의 돌봄 경험의 결과 도출된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돌봄을 제공하기 시

작한 시점부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까지를 돌봄의 초기와 중기 단계로 나누었으며 그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단계를 돌봄의 말기 단계, 돌아가신 후 돌봄을 종료한 시점부터 사후의 단계로 나누었다. 돌봄을 제공하는 며느리들은 치매시부모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며느리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며 돌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족의 일원으로 부족했던 돌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거나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부·순종·갈등의 감정이 순환되고, 치매시부모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삶을 마감하는데 있어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종교 활동과 봉사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었고 지역 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매시부모의 주 돌봄자인 며느리의 경험 속에 나타난 내러티브를 통해 치매시부모를 돌본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비스 이용이 며느리의 돌봄 부담의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탐색 결과 며느리의 치매시부모 돌봄 경험은 <질기고 긴 인연의 시작>, <내 삶이 아닌 며느리의 삶>, <바위가 되어 가는 고된 삶>, <허물을 벗은 새로운 인생>이었으며 그 속에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인 며느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孝)사상 및 유교사상에 의하여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요당하면서 치매시부모의 돌봄을 맡고 있었다.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기대에 맞물려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도움보다는 강요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며느리에게 커다란 갈등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며느리와 자녀에게 제2의 환자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의료비 지출과 사춘기 자녀의 학교폭력과 이탈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하였다. 또한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남편이 지지자가 되지 못하면 그 위기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해체의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 3명 중 1명은 자살의 위기를, 1명은 이혼의 위기를, 1명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후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가요양 서비스와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왔으나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가족들의 실질적인 이용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부족과 시설부족으로 오히려 며느리가 가정에서 치매시부모 돌봄과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치매시부모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양자들과는 달

리 더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치매시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며느리들은 자신의 돌봄에 대해 의무적이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반성을 해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강요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치매시부모를 돌보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측면을 종교적 신앙심과 봉사활동으로 순화하였으며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경험을 통해 노인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 내 사회복지활동에 더 큰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1은 치매시부모 모두 돌아가신 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자 2는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여 치매시아버지를 요양하였고 돌아가신 후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 내 불우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참여자 3은 요양보호사로 치매시어머니를 요양도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노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느리의 경험을 탐색한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유교 문화적 사상으로 인한 인식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와 그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개선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치매노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가족 돌봄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와 치매노인 돌봄자를 위한 상담소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작은 지역사회 안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치매진단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이 단순히 검사와 프로그램 진행으로 그치지 않고 치매의 조기 발견과 관리 및 치매노인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치매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보건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돌봄을 종료한 며느리만을 선정하여 현재 돌봄 중인 며느리의 부양부담에 관한 경험보다 심층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는 것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경험에 대해 사실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치매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인터뷰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그 경험이 여과되어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치매시부모 돌봄 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현

재는 배우자의 돌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며느리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며 후속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경험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Barusch, A. 1988.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of Elderly Spouse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8(5): 677-685.
- Central Dementia Management Center. 2014. The Metropolitan Office of Dementia Management Project Registration Status Survey of Management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 Cheong, Hyun Ja. 2000. A Study on the Family Stress of Stroke Patient.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aejon University.
- Choung, You Jin. 2007. The research on the physical and mental burdens of the main support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MyungJi University.
- Cho, Eun Young, Eun Hee Cho, and So Sun Kim. 2010.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n Burden of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421-437.
- Cho, yu hyang. 2006. Dementia care Theory of Practices. Seoul: JIPMOONDANG.
- Chung, Ju Young. 2007. A Study on the Primary Caregiving Experiences of the Demented Elderly: In the Case of the Spouse Primary Caregiv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 Chun, Kyung Im. 2008. The Caregivers' Burd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Using Day C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ork,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 Greene, V. L. et. al. 1989. The Effect of A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 on Stress and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to Fral Elderly Person. *The Gerontologist*. 29(4): 472-477.
- Hwang, Jae Young. 2010. Dementia Care Textbook I Basics. Elderly information center.
- Jang, Hye Young. 2014.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Caring Experience of the Spous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 University.
- Jeong, Jong Hwa and Hye Young Cho. 2014. A Qualitive Study on the Elerly Person with Dementia,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Welfare.
- Jeong, K. H. 2002. *Family Categiving for Aged and Policies for Families*. Korean Women Policy Institutions. (Eds.), Korean Women Policies. MIREINYRUK Institution.
- Kang, Hyun Sook, Keum Ja Go, Won Ock Kim, Eun Sim KIm, Soon Yong Khim, Hyun Li Kim, Soon Ok Shin, Sang Eun Oh, Jeong Sook Won, Chun Yu Li, Min Jung, and Nam Hee Choi. 1999. The Lives of Daughters-in-law Who Care for Par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33-1243.
- Kil, Yeon Ju. 2004. A Study on the Care-burden of Major Supporter to the Elderly Who Using Dementia Domiciliary Welfare Servic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unKyunKwan University.
- Kim, Hee Kyung and Ga Hyun Youn. 1996.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Burden between the Demented and the Nondemented Elderly Persons' Caregiv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5(1): 107-129.
- Kim, Hyun Min. 2013. A Study on Caregiving Motive, Process and Stress of Daughter-in-law and Daughter Who Take Care of Demented Elder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Jae Yop and Jang Won Choi. 2011. Culture: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and Care Burden of the Family with the Elderly with Dementia upon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 *Korean Thought and Culture*. 60: 495-525.
- Kim, Min Jung. 2010. A Study on Experiences of the Care Protect Workers for Caring the In-home Elderly Residents.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Industry Hanseo Universty.
- Kim, Tae Hyun and Gil Yang Jun. 1995. A Study on the Family Caregiving Experiences of the Demented Elderly Ppersons. *Journal of the Korea Gerntological Society*. 15(1): 15-27.
- Kim, Yeong iIn. 2009. A Study on Quality of Life and Burden of Caregiving of Primary Caregiver of Demented Elder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Wonkang University.
- Kim, Yong Kum. 2001. Relationships between Functional Status of Demented Elderly & Caregiver's Depression & Burde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Kim, Yu Jin. 2007. Understanding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of Living with Dementia: A

-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Inquir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4): 963-986.
- Kong, Eun Hi, Eun Hee Cho, and Mi Soon Song. 2009. The Burden and Caregiving Satisfactio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ultural and Non-cultural Predic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01-716.
- Kwon, Soo Young, Hyun Joo Lee, and Jun Young Lee. 2015. The Effects of Care Hours on Family Caregiver's Burden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Attachment. *Social Science Research*. 31(2): 317-337.
- Lee, Hae Ja. 2006. The Change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Lee, Hyo Ja. 2013. Case Study on the Changes of Caregiving Burden of Primary Elderly Care Givers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epartment of Regular Employees,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 Lee, Seon Ae. 2009. Effects of Stress on Elderly Dependents. Department of humanitie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Ma, Jeong Soo. 199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Behavior Problems for the Demented Elderly upon the Stress among Family member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Ma, Pum Soon. 1998. A Study on the People in Charge of the Demented: Especially People in the Day Care Center or Short Stay Servic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Min, Keum Ley. 2006. A Study on the Social sSupport with Dementia Older Fami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ies Chosun University.
- Motenko, A. K. 1989. The Frustrations. Gratifications and Well-Being of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2): 166-172.
- Oh, Jin Ju. 2003. The Experience of Care-assistants in Facilities for Dementia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1): 75-92.
- Paeng, Jae Young. 2009. Research of Burden to Support Senile Dementia for Sustainers: Priority to Family Intimateness and Management Strateg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oci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 Park, Hae Kyoung. 2013. A Study on Caring Burden, Coping Style and Well-being of Caregivers for Dementia Elderly. Department of Regional and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 Park, Sun Hee. 2007. A Study on the Usage of Weekend Protective Service for the Caretakers (Daughter-in-laws) of Elderly Alzheimer's Pati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 Seo, In Soon. 2003. The Experiences of Daughters-in-law Taking Care of Their Demented Mothers-in-law: Narrative Inquir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Seo, Jeong Mi. 2004. The Present Study about Home Welfare Services for Reducing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ith a Demented Eld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Song, Jun Ah, Jae Won Park, and Hyo Jin Kim. 2013. Impact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on Caregiver Burden in Nursing Homes. *Journal Korean Gerontol Nurs.* 15(1): 62-74.
- Song, Mi Young and Gyung Goo Choe. 2007. The Decision Factor on Primary Care-giver's Burden for Senile Dementia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7: 131-160.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STATISTICS KOREA. 2011. Populationprojections. (<http://www.kostat.go.kr/>)
- STATISTICS KOREA. 2014. Aging population trend. (<http://www.kostat.go.kr/>)
- Sung, In Shin. 1995. A Study on Family Burdens of Elderly with Dementia. Major in Hospit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ung, Ki Hye. 2006. Burden and Depression of caregivers according to cognitive function and daily living ability of dementia patients. Clonical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Sung, Mi Ra and Myung sun Yi, Dong Young Lee, Hye Young Jang, 2013. Overcoming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Caring for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at Hom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43(3): 389-398.
- Sung, Mi Ra. 2012. Disease Awareness Process in Primary family Caregiver of Demented Elderly.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Yih, Bong Sook and Chun Mi Kim, Myung Sun Yi. 2004.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 A Feminist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4(5): 881-890.
- Yoon, Myeong Sook and Shinae Park. 2014.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Re-separation Readiness Experiences of Adolescent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Child Care

- Institu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133-155.
- Yoo, Moon Sook, Yong Soon Kim, and Ki Sook Kim. 2010. A Study about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urden and Coping Ability for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Dementia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4): 1117-1127.
- Youn, Ga Hyun. 1998. Cultur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Burden and Caregiving Obligation of Primary Caregivers for Senile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1): 75-90.
- Yun, Ji Young. 2013. Primary Caregiver Burden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with Dementia by Types of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Department of Gerontological Nursing,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Zarit, S. M. 1989. Do We Need Another Stress and Caregiving Study. *The Gerontologist*. 29: 147-14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현숙, 고금자, 김원옥, 김은심, 김순용, 김현리, 신순옥, 오상은, 원정숙, 이춘옥, 정민, 최남희. 1999.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 해석학적 분석. *한국간호과학회*. 29(6): 1233-1243.
- 공은희, 조은희, 송미순. 2009.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가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감: 문화적, 비문화적 요인. *한국노년학*. 29(2): 701-716.
- 권수영, 이현주, 이준영. 2015.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시간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2): 317-337.
- 김민정. 2010. 요양보호사의 노인케어경험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 2009.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금. 2001.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07. 치매노인 가족의 간병 경험에 관한 선행적 현상학 연구. *한국노년학*. 27(4): 963-986.
- 김재엽, 최장원. 2011.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의 부양의식과 부양부담이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Korean Thought and Culture)*. 60: 495-525.
- 김태현, 전길양. 1995.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15-27.
- 김현민. 2013.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와 딸의 돌봄 동기 및 과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윤가현. 1996. 치매노인 및 정상노인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의 비교. *한국 노년학 연구*. 5(1): 107-129.

- 길연주. 2004.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범순. 1998.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 주·단기보호소 이용 부양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수. 1994.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금례. 2006.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7.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며느리수발자의 주말보호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경. 2013.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대처전략, 안녕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중앙치매관리센터. 2014.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노인 관리현황조사.
- 서인순. 2003. 치매시어머니를 수발하는 며느리의 경험: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인신. 1995. 치매노인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미. 2004. 치매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기혜. 2006.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부양자의 부담감과 우울감.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라. 2012.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질병 인식 과정.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미라, 이명선, 이동영, 장혜영. 2013. 재가 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3(3): 389-398.
- 송미영, 최경구. 2007.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7: 131-160.
- 송준아, 박재원, 김효진. 2013.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이 요양시설 간호제공자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15(1): 62-74.
- 오진주. 2003. 치매시설 생활보조원의 노인돌봄 경험. 한국노년학. 23(1): 75-92.
- 유문숙, 김용순, 김기숙. 2010.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 대처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4): 1117-1127.
- 윤가현.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1): 75-90.
- 윤명숙, 박신애. 2014.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133-155.

- 윤지영. 2013. 재가 치매노인의 정신행동증상 유형별 주 간호제공자의 부담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숙, 김춘미, 이명선. 2004. 여성가족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경험: 여성주의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4(5): 881-890.
- 이선애. 2009. 노인부양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자. 2006.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영. 2014.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진. 2007.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영. 2007.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부양에 관한 경험연구: 배우자 주부양자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화·조혜영. 2014. 認知症高齢者家族介護者の経験に関する質的研究, 日本社會福祉學會.
- 정현자. 2000. 뇌졸중환자 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향. 2006. 치매노인케어론. 집문당.
- 조은영, 조은희, 김소선. 2010. 가족 상호관계가 치매노인 가족원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421-437.
- 천경임. 2008. 주간보호센터이용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신체 및 정신 건강,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고령인구추이.(<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http://www.kostat.go.kr/>)
- 팽재영. 2009.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가족친밀감과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영. 2010. 치매케어텍스트북 I 기초. 노인정보연구센터.

조혜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2014년 일본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논문: 認知症高齢者家族介護者の経験に関する質的研究),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이다(sukin0309@hanmail.net).

부성은: 東京學芸大學 석사학위를 받고(논문: 成人期ダウン症候群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動に関する研究 2004년 2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보고서로는 “2015년 양평군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2015)”,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이다(b4743@hanmail.net).

정종화: 일본사회사업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A Study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Severely Disabled Persons. 2008년 3월), 현재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애인·노인 자립지원종합연구소의 소장이다. 장애인, 노인 Care Service 국제비교, 장애인자립생활, 케어매니지먼트, 활동보조 갈등관리, 장애인·위기개입, 복지경영, 복지교육이 관심분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논문으로는 지적장애인 자립생활기술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여(장애인복지학, 2014), 자폐성장애인의 지역사회 케어서비스 연구(재활복지, 2014), 지역밀착형 장애인·노인을 위한 긴급지원 패트roller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RI KOREA, 2015),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연구(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등이 있다(welfare36@hanmail.net).